

강진군 농산업 창업육성 지원센터 만든다

장흥·영암군과 농식품부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 선정 사업비 30억원 확보...차세대 청년 농업 경영인 육성

강진군이 농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

강진군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15년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분야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강진군이 주관하고

장흥·영암군이 협력하는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 중 국·도비 26억원을 지원받아 2017년까지 농산업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 지원센터를 만든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의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청년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계획이다.

군은 '농산업 창업육성 지원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대신 농업기술센터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지역특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교육인원 연 500명 ▲120여명의 창업농 육성 ▲36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을 개별적으로 이용한 방식에서 벗어나 인근 군과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지자체간 중복투자 예방과 비용절감으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도 효과도 기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기존에 농·특산물 직거래 센터 운영과 주경야숙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농업대학 운영,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청년농업 육성에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전략 사업을 겸인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남원 항공우주 천문대 "별 보러 오세요"

내달부터 3개월간 야간 천체관측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노암동에 자리한 남원 항공우주 천문대(사진)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천체관측 특별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사랑애(愛) 도시 남원! 별보기 좋은 천문대 NO.1(남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탐방객은 개별적으로 전화예약(063-620-8988)해야 한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남원시 시설사업소(소장 오진관)는 "평소에 별에 관심이 많지만 관람객이 붐비는 운영시간대와 가족들의 식사 등으로 인해 천문대 방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야간 특별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가족단위 탐방객들이 3시간여에 걸쳐 밤하늘을 여행하며 우주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정읍시 내달까지 나무 16만그루 심는다

편백·상수리·해송 등 경제수종 위주 조림사업

정읍시가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입, 26만1000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시는 올해 조림사업으로 122ha에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 조림 ▲시유림 조림 등 4개분야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수종 조림사업(80ha)은 편백과 상수리, 해송을 심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질 좋은 목재 공급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큰나무 무공의 조림사업과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40ha)은 편백과 소나무 등을 심어

산림재해방지와 경관조성 등의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유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백합나무 등 속성수를 심어 바이오 순환림(2ha)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산림의 토양과 기후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해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지역 산림면적은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문화재와 함께하는 재즈공연'

14일 구 조선은행 지점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14일 오후 3시 장미동에 위치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근대건축관·등록문화재 제374호)에서 근대문화재와 함께하는 재즈공연을 개최한다.

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손성제 밴드와 함께하는 이번 무료 콘서트는 '회상', '여제 내리비', '휘파람을 부세요' 등 다수의 재즈곡을 선보인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의 문화 감성을 해소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지난 2008년 보수·복원 과정을 거쳐 현재 근대건축 및 은행관련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에서 고대수가 다니던 은행으로 묘사됐다.



아낙네 손길 끝서 오는 봄 12일 강진군 성전면 동령마을 마늘밭에서 잡초를 뽑는 마을 주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마늘면적이 전년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진군 제공>

장흥군 200병상 '양·한방 통합 의학센터' 건립

군의회 관련조례 통과 안양 비동리에 내년 6월까지 통합의학박람회 준비 박차

장흥군이 통합 의학센터(조감도) 건립사업과 '국제 통합의학박람회'(2016년 9월 29~10월 31일)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통합 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일원 부지 10만4899㎡에 내년 6월 말까지 200 병상 규모의 양·한방 시스템을 갖춘 '통합 의학센터'가 건립되고, '국제 통합 의학박람회' 주제관 등 제반적인 공사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총31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통합 의학센터는 현재 2개 의료기관(동국대 의료법인 경주병원, 분당 한방병원)이 장흥군과 위·수탁 체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 190억원 예산으로 치러지는 '장흥 국제 통합의학박람회'는 내년 6월 말까지 900평(1, 2층) 규모의 주제관을 비롯해 치유의 숲, 문화공연무대, 숲 쉼터 등 '치



유체험 존'(zone)이 조성된다.

전남도와 장흥군은 지난달 말 통합 의학박람회 준비를 위한 한시적 기구인 사무국(23명)을 설치한 데 이어 도지사와 장흥군수가 공동으로 맡는 조직위원회(300명 규모)를 이달 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통합의학박람회'는 40개국 5만여 명의 외국인과 총 100여만명의 관람객이 참가할 뿐 아니라 통합의학산업을 선도하는 지역 이미지 구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군 의회와 일부 단체는 "진입로 개설과 상·하수도관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치유체험 존' 조성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박람회 개최를 1년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日도쿄 식품박람회 전남지역 10개업체 3120만달러 수출상당

전남도는 12일 "지난 3~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 도내 10개 업체가 참가해 3120만 달러의 수출상당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0회째인 동경 식품박람회(FOODEX 2015)는 식품전박람회로 79개국 2977개 업체가 일본시장 수출 확대를 목표로 참가했으며, 전 세계 식품전문기업 및 바이어 등이 선호하는 박람회다. 올해는 7만7361명의 내방객이 박람회를 찾았다.

전남도는 일본 식품시장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기존 바이어와 에이전트를 최대한 활용해 박람회장 초청 상담회를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성진의 '안도시아닌' 성분의 자색 감치가 일본 인터넷 판매망 '아시아 시장'에 연간 2000만 달러, 바이어테크의 혈압강하 소금이 Pescogroup에 연간 500만 달러, 동의나라의 건강음료가 아이리스 오야마 그룹에 연간 500만 달러, 명진식품의 한과가 Ys Food 등에 35만 달러, 살롬산업의 제품이 30만 달러, 새롬산업의 햇개장김이 30만 달러, 현대영농조합의 양파음료가 25만 달러 등의 수출 상담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전남도는 호치민(4월), 상해·태국(5월), 홍콩(8월), 베이징(11월)의 국제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현석기자chadol@

상무 Biz Tow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까.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1층	제과점 계약완료 편의점, 보세외류 임차예정	잔여 231㎡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타워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비즈니스호텔 W

광주 상륙!!

(구. 백운동 국제관광호텔)

남구청이전 완료
광주제2지하철(순환선) 백운역 확정
백운고가로로 철거후 지하화 확정
나주혁신도시시 20분거리
봉선동 3지구 개발 진행중
주차시설(타워)600대확보
백운광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투자까지 1순위 지역

8층 (1120평)	중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7층 (1200평)	개인병원, 의원, 스카이라운지
6층 (1200평)	비즈니스 호텔
5층 (1200평)	비즈니스 호텔
4층 (1200평)	비즈니스 호텔
3층 (1200평)	비즈니스 호텔
2층 (1200평)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2500평)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피부및사치시, 한의원, 판매시설, 침차전문점
지하1층 (2700평)	스포츠및사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22000평)	사우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콜라텍

국제비즈니스호텔 W

(구. 백운동 국제관광호텔)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21세기 산업개발 (임대문의) 010-2112-3232